

## 자신이 꼭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 . .

이 소 민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재학 중
- 2016년도 5급 공채 재경직렬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5급공채 재경직렬에 합격한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생활패턴이나 공부 방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쓰는 것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수험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다른 합격생 분들의 수기를 읽으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수기를 쓰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기는 그저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I. 수험기간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9월에 공부를 시작하여 2015년 2차 시험까지 1년을 휴학하여 고시 공부에 집중을 하고, 2015년도 2학기는 복학해서 다닌 후 2016년도 1학기에 다시 한 학기 휴학하였습니다.

2015년 제2차시험(초시)에서 낙방한 후, 2016년 시험(재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경제학 94.33, 행정법 56.00, 행정학 60.33, 재정학 77.66, 국제경제학 33.66, 평균 71.55, 합격선 64.81).

### Ⅲ. 전반적인 생활패턴 및 공부장소

저는 1순환 및 2순환, PSAT 준비 기간 때에는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시 때와 재시 때 모두 독서실이 조금 더 집중하기 좋다고 여겨 3순환 때는 고시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 장소의 경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장소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 공부에 가장 매진하고자 했던 재시 3순환 시기 중심으로 생활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아침에는 고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적어도 8시 전에는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재시 때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늦잠을 자 9시나 10시에 착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전 동안 공부를 한 후 12시쯤 점심을 빵이나 우유 등으로 독서실에서 대충 때우고 다시 앉아 오후 동안 공부를 하거나 학원 실강을 들었습니다. 저녁은 다시 고시식당에서 먹고 공부를 한 후, 밤 10시-12시 동안 답안 작성 스테디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약해 오전, 오후, 저녁 각각 한 번씩 자리에 엎드려 쪽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주말의 경우, 1순환이나 2순환 기간 때에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 종종 쉬었지만, 3순환 때는 웬만하면 일요일에도 거의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Ⅳ. 시험별·과목별 공부 방법

#### 1. PSAT(제1차시험) 공부 방법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고시 진입 여부를 고민하던 2014년도에 제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응시한 PSAT시험에서 80점 후반대를 맞아 PSAT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에 진입하였습니다. 초시 때와 재시 때 모두 시험 약 5주 전부터는 자료해석만 하루에 한 회씩 풀다가,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한 세트씩 풀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공부량을 줄이고 일찍 취침함으로써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PSAT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주로 기출문제 및 학원 모강을 푸는 방식으로 PSAT을 준비하였고, 그 외에는 신현 선생님의 자료해석 기본서 한 권과 논리학 기본서 한 권을 참고하였습니다. 인강이나 학원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PSAT의 경우 저마다 각자에게 맞는 공부량이나 방식이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2차나 3차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전처럼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다보면 자신에게 취약한 유형을 넘기는 스킬 등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2. 제2차시험 공부 방법

### (1) 경제학(94.33)

경제학의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첫째,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둘째, 답 도출에 집착하기보다는 풀이 방식을 다각도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초시 때 경제학 점수가 다소 낮아 재시 때는 경제학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1순환 및 2순환 기간 때 경제학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고 초시 때 모아둔 학원 강의 자료와 교과서로 공부하였습니다. 대신 다른 과목을 주로 공부하는 시기에 하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씩 경제학 문제를 매일 꾸준히 풀었습니다. 그리하여 1차 시험을 치기 전에 정운찬·김영식 저 거시경제론 연습문제와 황중휴 선생님의 500제, 그리고 김진욱 선생님의 600제를 미거시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이 때 헛갈리거나 틀린 문제를 체크해두고 3순환 시기에 매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씩 체크한 문제를 다시 풀었고 행시 및 입시 기출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경제학 문제풀이를 하는 한편 경제학 3순환 시기에는 김진욱 선생님의 미시경제학과 황중휴 선생님의 거시경제학 강의를 인강으로 빠르게 돌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순환 및 2순환 시기 때 만들어놓은 단권화 자료를 보면서 개념 및 기초적인 문제풀이를 놓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또 답안작성 스테디에서는 행시 및 입시 기출과 강사 모의고사를 추려서 답안을 연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정답 도출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답안을 구성할 때 풀이를 어떤 각도에서 서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거시의 경우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운찬·김영식 저 거시경제론 연습문제의 경우, 고시 기출문제가 다수 수록되어 있고 교수님의 시각에서 풀이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2) 행정법(56.00)

저는 초시 때 행정법 점수가 52점으로 낮은 편이어서 행정법이 제 취약과목이라 여겼고, 행정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초시 낙방 후 행정법 1순환 시기에 정선균 선생님의 1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며 시험 이후 잊어먹었던 개념들을 다시 익혔습니다. 그 후 2순환 때는 박도원 선생님의 2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며 고득점 노하우와 답안 작성 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류준세 선생님의 워크북에 제 나름대로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류준세 선생님 암기장의 일반론을 다른 답안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현을 압축하고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암기장

을 psat 준비기간에도 틈틈이 보아 일반론을 잊어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순환 때는 박도원 선생님의 강의를 실감으로 듣는 동시에 저의 단권화 자료였던 류준세 선생님의 워크북으로 개념을 숙지하였습니다. 답안작성 스터디에서는 행시 및 사시, 변시 기출을 모두 연습하였습니다.

저는 행정법의 경우에도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순환 시기에 다른 과목 3순환 동안에도 틈틈이 행정법 암기장을 보았고, 하루에 50~100점 정도씩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과 타 강사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빠르게 논점을 추출하고 답안을 목차만 작성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첫째, 논리 흐름대로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깊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과 둘째, 자신이 선택한 학설과 사실관계 및 법조문을 활용하여 사안포섭을 풍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한 일반론을 그대로 적은 후 '이에 따르면 ~이 된다'라고 간단히 검토 및 사안 포섭하는 경우 고득점할 수 없습니다. 학설은 최대한 압축하고 판례는 정확히 외워 현출하되, 검토 및 사안포섭을 풍부히 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3) 행정학(60.33)

행정학의 경우 저는 제시 때는 1순환 및 2순환을 듣지 않고 제가 초시 때 정리해 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송윤현 선생님의 답안지 특강을 꾸준히 들으며 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3순환 때는 송윤현 선생님의 실감을 들었고, 제 단권화 자료를 보면서 답안작성 스터디에서 행시 및 입시 기출문제와 강사 모의고사를 추려 풀었습니다. 답안지특강은 꾸준히 수강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학 이론 암기에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고 각론에서 꼭 필요한 이론의 경우에만 따로 정리해 암기하였습니다. 논문의 경우에도 투입 시간 대비 얻는 것이 적다고 느껴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론이나 논문을 암기해 현출하기보다는 답안작성요령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행정학 답안 작성에서의 핵심은 사례의 활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보다는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4) 재정학(77.66)

재정학의 경우 1순환을 듣지 않고 초시 때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며 이를 단권화 했습니다. 2순환 때는 황중휴 선생님의 3순환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3순환 시기에는 김진욱 선생님의 강의를 인강으로 빠르게 돌려들었고 제 단권화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한편, 행시 및 입시 기출문제와 강사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재정학 또한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과와의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 역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순환 및 2순환 시기 매주 일요일마다 재정학 모의고사의 zip문제를 몰아서 꾸준히 풀었습니다. 초시 3순환 때 3순환 시기에 zip을 모두 풀기에는 벅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3순환 시기에도 일요일마다 zip을 한 번 더 풀고, 재정학 3순환 때에는 이 때 체크해놓은 문제 중심으로 다시 풀었습니다.

#### (5) 국제경제학(33.66)

국제경제학의 경우 많은 분들이 통계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십니다. 저 또한 초시 낙방 이후 통계학으로 바꿀까 고민하였지만, 통계학 기초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이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수학적 센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통계학 선택이 더욱 유리한 것 같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황중휴 선생님의 1순환을 듣고 초시 때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며 이를 단권화했습니다. 3순환 시기에는 황중휴 선생님의 강의를 인강으로 빠르게 돌려들으며 제 단권화 자료 중심으로 보았고, 행시 및 입시 기출문제와 강사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도 재정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1순환 및 2순환 시기 매주 일요일마다 국제경제학 모의고사의 zip문제를 몰아서 꾸준히 풀었습니다. 3순환 시기에도 일요일마다 zip을 한 번 더 풀고, 국제경제학 3순환 때에는 이 때 체크해놓은 문제 중심으로 다시 풀었습니다.

#### (6) 제3차시험(면접) 공부 방법

사실 16년도의 경우 면접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제3차시험은 많이 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테디를 통해 집단토론 및 PT를 연습하였고, 개인 면접은 주로 혼자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보는 식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왜 공직에 도전했는지,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직윤리 및 공직가치에 부합하도록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동시에 인터넷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정책적 이슈를 숙지하는 것도 사례를 들어보라 같은 면접관님들의 돌발 질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실전에서는 무엇보다 긴장이나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면접관들께서 압박을 심하게 하셨는데, 그럴 때 ‘떨어뜨릴 생각이시라면 이렇게 압박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조직과 자신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조직에 순응하고 따르는 방식으로 대답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V. 체력 및 스트레스 관리

저의 경우 따로 운동은 하지 않았으나 3순환 때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종종 늦잠을 자는 등 고생하였습니다. 3순환 이전에 꾸준히 운동하여 체력을 비축해놓고, 3순환 때는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경우, 사실 고시생은 친구를 만날 기회나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자 스트레스를 풀거나 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고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심하게 넘어졌는데, 이후 오른손잡이임에도 오른쪽 손목 인대가 끊어진 상태에서 2년의 수험생활을 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습니다. 수술을 미루고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실전 때 손이 움직이지 않아 열 바닥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3순환 답안 작성 시기에도 경제 과목들은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목차 작성 위주로만 연습했고, 논문 과목들은 타자로 연습했습니다. 이 때 종종 울면서 공부를 했고 시험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수없이 들었지만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혼자 음악을 듣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종교나 음악의 힘을 빌렸던 것처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마련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VI. 나가며

2년 남짓한 수험생활 동안 제 자신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손목 문제로 수험생활 내내 글 쓰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전 때는 오기로라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고, 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꼭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시에 도전하기로 한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공부한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합격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